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3개월째 1위

이낙연 25.1% · 황교안 19.5% · 이재명 7.9% · 홍준표 4.9%

홍준표 '급상승' 첫 4위...유승민 · 심상정 · 박원순 · 오세훈 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중에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조사 이래 처음으로 4위로 상승했다.

이낙연은 지난달 대비 0.1%p 내린 25.1%를 기록, 이 총리에 두달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뒤졌다. 황 대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60세 이상, 20대, 보수층, 문 대통령 반대층, 한국당 지지층에서 1위를 기록했다.

와 30대, 50대, 진보층과 중도층,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1위로 조사됐다.

2위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대비 0.1%p 내린 19.5%를 기록, 이 총리에 두달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뒤졌다. 황 대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60세 이상, 20대, 보수층, 문 대통령 반대층, 한국당 지지층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0.1%p 내린 7.9%로 전월에 이어 3위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2050세대에서 이탈했으나 호남과 40대, 진보층에서는 결집했다.

4위는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로, 0.9%p 오른 5.4%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홍 전 대표는 7위에서 세 순위 상승하며 작년 11월 조사 이래 처음으로 4위로 올라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4.6%, 0.1%p ↑), 심상정 정의당 대표(4.2%, 0.4%p ↓), 박원순 서울시장(3.7%, 1.2%p ↓), 오세훈 전 서울시장(3.6%, 1.1%p ↑), 김경수 경남지사(3.5%, 0.3%p ↓),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2.9%, 0.2%p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2.7%, 0.2%p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2.2%, 0.4%p ↓) 순으로 조사됐다. '없음'은 10.7%, '모름·무응답'은 4.0%로 집계됐다.

이번 주중동향은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포인트다.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나경원 "조국 기자간담회, 국회가 여당과 文대통령에 놀아난 형국"

"회견 내내 거짓과 회피만 가득...진실의 심판대로 올라와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조 후보자가 담당하다면 자료와 증인 앞에 떳떳해야 한다. 진실의 심판대로 위로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토론회에서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조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에 대해 "회견 내내 거짓과 회피만 가득했다"며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하는 아당이 두려웠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인과 자료, 야당이 없는 독백의 무대 연출이었다"며 "거대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여당 때문에 대통령의 거대 권력에 놀아난 형국이다. 정치 참사로 민주주의 후퇴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모든 비정상의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 이성을 찾는 독백의 무대 연출이었다"며 "거대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여당 때문에 대통령의 거대 권력에 놀아난 형국이다. 정치 참사로 민주주의 후퇴다"고 말했다.

뉴스1

아라. 문재인 대통령은 짧은 재승부 요청 기한으로 더는 국회의 청문 책무와 권리를 막지 마라"며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요청의 건)을 의결해 닷새 후 정상적인 청문회, 진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부탁하지 않았는데 받은(논문) 1 자에서 올려졌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학금이 떨어졌고, 사모펀드가 뭔지 모르고 10억 원 넘게 돈을 넣었는데 관공사 수주에 성공했다"며 "조국에게 알려진 지니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국민을 더 화나게 하지 말고 수사부터 충실히 받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명 철회가 정권을 보호하는 길이고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이다"고 말했다.

뉴스1

홍준표 "조국, 내려오면 검찰에 죽고 계속 내달리면 국민에 죽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내려 오면 검찰에 의해 죽고, 계속 내 달리면 국민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국(후보자)은 알까"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면 그렇게 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조국(후보자)을

보면서 참 딱한 처지에 놓였다고 생각 했다"며 "마치 시퍼른 작두 위에서 춤추는 선무당처럼 내려올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믿을 곳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데 권력의 변심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조국은 알고 있을까"라고 했다.

뉴스1

김동연 전 부총리 정계입문 초읽기?...지지도 여론조사 '눈길'

충북 청주상당 · 중부3군 유권자 대상 인지도 등 조사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권 영입 타진설 등 해석 분분

최근 충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2곳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선 출마 시 지지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지역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쯤 충북 청주 상당구와 증평·진천·음성(중부3군) 유권자 일부에게 내년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여론조사 내용은 김동연 전 부총리를 알고 있는지, 내년 총선에서 어느 인물을 지지하는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상당구의 경우는 현역 4선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정우택,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김 전 부총리

간 3자 구도는 물론 정 의원 대신 한국당 입당이 유력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복수의 질문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3군은 임해중 현 더불어민주당 주당 지역위원장과 김 전 부총리에 대한 인지도, 김 전 부총리와 한국당 경대수 국회의원의 양자 구도, 임해중 위원장과 경대수 의원의 양자 구도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여론조사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김 전 부총리가 총선에 출마했을 경우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김 전 부총리에 대한 정치권의 영입 시도가 본격화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아직까지 여론조사를 의뢰한 곳이 어디인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경쟁 후보군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해당 인물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부총리의 정계 입문과 총선 출마가 가시화 될 경우 지역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아 보인다.

충북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청주 상당구의 경우 민주당 후보군으로만 정경순 지역위원장, 장선배 도의회 의장,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김 전 부총리가 가세하면 민주당 후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물론 정치권의 러브콜에 김 전



부총리가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퇴임 기자회견담회에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정계 진출설에는 선을 그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내용으로 봤을 때 김 전 부총리를 영입하기 전 경쟁력을 알아보는 단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뉴스1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칙의 안전

직장내 괴롭힘

장시간근로는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1분위
2014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2015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2019	183,961원	104,062원	183,961원	183,961원	183,961원	183,961원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